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 들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우상호 '협박' 합화공작 낚새, 국가원수 살해 협박, 무조건 투항요구, 공산당 수법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촛불 시위에 참가하여 박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고 국가원수 살해 협박까지 했다.

이는 양아치도, 조폭도, 마피아도, 야쿠자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악랄한 협박이자 대통령을 살해 제거하자고 선동한 것이다. 이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살인 예비음모인 동시에 수괴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 국헌문란 내란선동이다.

문제는 우상호가 보여준 작태가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궤(常軌)를 크게 벗어난 흔치 않은 행태라는 데에 있다.

우상호가 대통령에게 "목숨만을 살려 주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중공군이나 북괴군이 전장에서 적군에게 투항을 권고 할 때 사용하는 합화공작(賊話工作) 수법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駭然失色)케 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북괴군 정



찰총국 산하에 적공부(敵政部)라는 심리공작부대가 있고 대대나 중대 급까지 배치 된 말단 적공요원의 주 임무가 전장(戰場)에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열(戰列)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희는 포위 됐다"고 고함(高喊)을 지르며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손들어!"하는 식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며, 이를 합화공작(賊話工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상호가 어떻게 이러한 합화공작 수법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학습하고 또 이를 적절

하게 구사할 수 있는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우상호가 소위 NLPD 주사과 출신 공안사범 전력자라고 할지라도 '합화공작' 수법까지 익힌 자라면 이는 결코 예상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출신 49명이 20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잔형 면제 사면복권에 필요한 전향서 작성을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 한 '준법서약서'

제출마저 거부 했다는 사실이다.

거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이 노동당이나 지하당 또는 불순서클에 가입 시 강령과 규약을 숙지 한 후 엄숙한 가입선서와 충성맹세를 제출하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위수감독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친지감독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온 자들로서 반역의 DNA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우상호는 차체에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대국민 고백(告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타의 공안사범 출신 급배지들 역시 '전향여부'와 대한민국에 적대 한 사실여부를 자복(自服)하고 공안 당국은 여야 공안사범 출신 49명의 전력과 전향여부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

백승묵 대기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하야'와 '탄핵'이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좌절감을 느끼셨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제가 갖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난무할 뿐이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숙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에 그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진실규명 작업이 한창인데도 실제와 증거보다는,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보도를 통해 모든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금기시하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국민 여러분께 나서서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입을 연다는 게 자칫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의 물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임이만만, 이러

한 때에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가인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 드러난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가깝게 지냈고, 최순실이 이를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도모했다는 정황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하여 가져온 기대가 좌절로, 애정이 분노로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저지른 불법, 위법 행위에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듯이,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주장, 그 또한 결코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 분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회의나 면담 등 기회에 대통령을 솔하게 많이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다.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면 국정이 일반적으로 경직되기 쉽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의 조력이 없이는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진실이 규명된 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칭송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민적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부패가 없고 공정하게 깨끗한 나라, 서로 나누고 베풀며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자긍심을 갖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냉정을 되찾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국무총리 정홍원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 4-7 영광교회(송은석 목사)
-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 25-27 소망교회(김주영)
- 28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015년 6월

- 1-3 진접교회(송일욱 목사)
-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기원 원장)
-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자 원장)
- 20-23 반석기도원(김명숙 원장)
-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 원장)

2015년 8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5-7 한협산기도원(영금 원장)
-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 17-20 감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 조강수 목사)
- 1 오산리교회(송일욱 목사)
- 3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 7-11 은누리복음화원(이호 총재)
- 14-15 고단총회
- 14-16 군자대헌교회(이희수 목사)
-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21-24 임직후보자교육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 12-13 정기노회
- 18 새벽교회(장동술 목사)
- 18 영광교회(임승원)
- 19-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5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 25-29

2015년 11월

-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 30-4 미안바사교회(방만석 목사)
- 7-9 살롱교회(고정인 목사)
- 14-16 정동진 산성 그리스도교회(최낙현 목사)
-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8-30 반석교회(전승일 목사)
-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 11-13 한동교회(신현덕 목사)
-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8-21 에덴교회(양희목 목사)
- 24-27 선일교회(이관석 목사)

2016년 2월

- 1-4 감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5-17 대구열린교회(류창호 목사)
-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봄 철 축복 대 심방 의 달

2016년 4월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 목사)
- 11-12 정기노회
-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 25-27 양문교회(노희식 목사)

2016년 5월

- 2-5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9-11 한우리교회(윤준총 목사)
-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 23-26 초대총만교회
-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5 새생교회(홍창인 목사)
-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3-15 사랑의교회(최을식 목사)
- 16 안양갈멜산기도원(예제원장)
-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 20-24 선교자신화생여름세미나
- 27-30 사랑제일교회(오민곤 목사)

2016년 7월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 18-21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 원장)
-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 10-12 한협산기도원(영금 원장)
-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 22-25 감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6년 9월

- 5-8 고단총회
- 12-17 추석주간
- 19-23 선교회(방만석 목사)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6-28 다시광교회(방종현 목사)
- 29 군산열교회

2016년 10월

-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 10-11 정기노회
- 17-21 임원수련회
-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4-27 새진영교회(설정화 목사)
- 31-11,2 홀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 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 7 삼복교회(고정인 목사)
-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 17-18 노회지교회(심방)
-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1-23 총회영성대회
- 28-30 행복예수원교회(미영건 목사)

2016년 12월

-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8-24 거울부흥성회(예복교회)
- 26-30 은사리교회(최재식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박 대통령에 필사즉생 네 글자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10월 1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서 문재인이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UN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기로 결정하고 10.4 선언에 제 4항에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써서는 안 될 표현을 김정일 지시라서 뺄 수 없다고 하는 등 간첩수준의 부역(附逆)질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문재인 개인뿐만 아니라 야권 종북(=진보)진영 전체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놀란 나머지 엄경결에 나온 첫 번째 반격은 놀랍게도 김정은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각계 층이 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출 분기(奮起)하자”고 정권타락 체제전복 선동 지령을 하달한 것이며, 두 번째 반응은 같은 날 추미애 등이 “내란, 교전, 암살, 작살내자” 등 한국판 킬링필드를 연상케 하는 살육전(殺戮戰)을 예고 한 것이다.

세 번째 반응은 jbc 순석회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최순실(?) pc내 용 분석' 폭로를 신호삼아 조중동을 비롯한 전 언론이 마치 사전 각본대로 노는 양, 과장오보 및 허위날조 폭로 경쟁에 돌입한 것이며, 네 번째 반응이 중고등학생까지 동원한 야권 종북의 촛불투쟁 허장성세이다.

다섯 번째 반응이 법원이 청와대 턱밑까지 시위대 진출 허용한 데 이어서 검찰이 본인에 대한 수사도 없이 '박근혜 공범' 올가미 씌우기를 한 것이며, 여섯 번째 반응이 야 3당과 결탁한 김무성 등 새누리 비박 잔이계가 합세하여 탄핵국면을 열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1.4일부터 주말마다 계속 돼온

김정은 대남지령 야권 종북반역 여권 반란세력 연대 총공세



군중집회는 이미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11.26주말에 트럭터를 동원한 청와대 공격설이 유보되고 통진당학생위 등 대학생들이 박 대통령 체포조까지 결성했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jbc 저질 허위 폭로극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애국우파가 강력한 반격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의 오보경쟁에 식상한 국민들이 신문방송을 외면하는 등 점차로 호전되는 느낌이 든다.

단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초중고 학생들까지 동원된 군중집회에서 제2의 4.19, 제2의 6.29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여 댄 폭동소요주도세력이 상투적인 시체말이 불화살작전의 일환으로 우발을 가장한 살인 등 어린학생 희생자가 발생하면, 견장을 새 없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 남파공비가 개입하여 전국적 규모의 동시다발적 폭력사태를 유발, 제2의 4.3사태, 제2의 5.18을 능가하는 폭동소요 봉기형태로 발

전시키고 이를 제때에 진압 평정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의 오관을 부추겨 대규모 도발이나 무력남침을 초래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짚어 본 것은 과열에 직면한 전법집단수괴 김정은의 망상(妄想)과 “김정은이 망하면 합 것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必死(必死) 내 글자를 보내며“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 대한민국 애국가 1절 가사를 되뇌어 본다.

전사키고 이를 제때에 진압 평정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의 오관을 부추겨 대규모 도발이나 무력남침을 초래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소야대 환상에 젖어 화면에 빠진 야권 내에 양심 있는 애국세력에게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옳게 읽고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必死(必死) 내 글자를 보내며“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 대한민국 애국가 1절 가사를 되뇌어 본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서울나들이’로 웃을 일이 생겼어요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 15명 ‘스마일투어’ 실시

“야~ 탕크다”, “어~TV에서만 봤던 국회네~.”, “인증사진 찍어 야지.”

태어나서 경북 경산에서만 자랐던 청소년이 서울의 전쟁기념관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 청계천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투어하며 하는 말이다.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11월 18일 경산지역에서 선발된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유명한 곳을 돌아보는 ‘스마일투어’를 실시했다.

‘스마일투어’는 경산아름다운교회(담임 이주용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부모이혼이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유로 웃음을 잃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웃음을 찾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참가자는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초~고등학생)들 가

운데 종교에 상관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청소년아침무료 급식을 이용하거나,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올해는 한국기독교언론재단(총재 한은수 감독, 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사),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 대표회장 이주대 장로)로부터 투어버스와 식사, 선물을 후원했다. 또 LG그룹 본사 견학과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았다.

투어코스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평소 TV로만 볼 수 있는 국회의사당, 광화문, 청계천, 청와대를 돌아 봤다. 스마일투어를 기획한 이주용 목사는 “교회 후원으로 생전처음 KTX를 타보는 경험-생애 첫 서울 나들이-여행 경험 등이 청소년들의 꿈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라며 “향후에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스마일투어’

시국이 대단히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1모든 언론들이 대통령의 잘못과 흠집을 찾아내기에 열을 올리며 경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무언가 크게 잘못 된 것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고 규탄하며 돌을 던지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 연일 “하야하야! 퇴진하라! 석고대죄를 하라! 심지어 자살하라! 고 외쳐대는 그들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런 말을 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걸까요?

국민들 앞에서 책임 질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걸까요? 누가 그들보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당직에서 물러나고 자살하라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물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이 주어지고 따라서 책임도 더 큰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반성이 없이 오직 그만이 천하의 대역죄인인 것처럼 돌을 던지고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볼의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고 시국을 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작고 미려한 저의 생각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내 눈이 밝아진 연후에야 비로소 남의 허물을 보고 분별하며 그에게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너무 안일한 생각일까요? 그렇게 생각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시국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신 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살뜰!

공주에서 객완근 기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헌행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행요령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이종진목사 이사장: 조경숙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김창룡



성도목사 박영미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이든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성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통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 등 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삼배기도회	오후 9:00	중 . 고 등 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2016 한기축연 · 헤브론기 전국신학대학축구선교축제

서울신학대학(지도교수:이춘오)선교팀 2016년 헤브론기 축구우승

지난 11월 7일 오전 9시 천안에 위치한 천안축구센터에서는 한국 기독교축구연합회와 헤브론축구선교회(류영수 목사)가 주최하는 전국신학대학축구선교축제가 열렸다. 해마다 봄, 가을에 젊은이들이 축구로 모여 13년째 거행되는 헤브론 주최 전국신학대학축구선교축제와 대회는 주님의 군사들을 운동장에서 훈련시키는 귀하고 멋진 시간이다. 이세상은 잘 훈련된 군사만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세울 수 있다.

요즘 세간의 문제되는 국가적인 혼란도 따지고 보면 훈련 안 된 양아치적인 인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훈련된 군사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비밀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하여 가난하게 살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이날 오전 9시 천안축구센터에는 12개팀 300여명의 젊은 신학도 군사들이 모여 함께 축구선교 훈련을 받으며 가슴이 설레이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양아치가 되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자 지키는 철학의 건달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시편1편의 설교를 들으며 젊은이들만 보면 가슴이 설레이는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잘 훈련된 소금과 빛의 군사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고 하였다.

올해는 11.7일(월) 오전 9시부터 천안축구센터에서 전국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는 지난 4월 봄 축제를 우승했던 서울신학대학(지도교수:이춘오)이 작년도 가을대회 3위의 설움을 떨쳐 버리며 한국 신학대학 축구선교 생벽을 이루는 대전 침신대학을 2:0으로 격파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잘 준비된 팀 지도교수들이 불참하여 학생들만이 벌인 오늘의 경기는 평소 얼마만큼 교수님들의 지도로 훈련이 잘 되었는가가 승부의 분수령이었다.

“축하한다”.....“우승”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미치게 한다. 올해 졸업하는 선배들과 보내드리는 후배들이 학교의 역사로 남기기 위해 미치도록 뛰었다. “우승”..... 우승기를 흔들며 잔의 축배를 드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에서 우승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승할 만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배우게 된다.



지난 9월 4일 창립 26년을 맞이한 헤브론축구선교회는 그동안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구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 전국 시니어 선수들을 돕는 실버사역을 수년째 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전국 200여개 여성축구단 가운데 유일한 여성축구선교단인 헤브론보아여여성축구단을 창단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을 가려고 한다.

아시아축구선교의 선구자 헤브론(류영수 목사)은 “아직도 보

나나는 내일을 위해 아시아 대륙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며,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에 축구를 통한 질서 있는 축구 선교의 문화가 꽃피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헤브론 사역 26년간을 걸어오면서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느새 늙어버린 64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 번 주님의 좋은 시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취재 백운성 기자

세주부협, 제4대 총재 하종우 목사 취임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이하-세주부협 대표회장 노은총 목사)에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은총기도원에

서 하종우 목사(웨신부총회장 마라톤교회)를 제4대 총재로 추대하고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박종만 목사의 인도로 부총재 최점미 목사(예화교회)가 기도



를 통해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며, 복음진리 선교를 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선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대표회장 노은총 목사(영광교회 은총기도원)는 총재 하종우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부총재 이재원 목사(부활교회), 지저스

노은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는 창립 12년을 맞이했으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문 고광욱 목사(생명수교회), 총재 하종우 목사(마라톤교회 웨신교회 부총회장), 대표회장 노은총 목사(영광교회 은총기도원), 부총회장 이재원 목사(부활교회), 최점미 목사(예화교회), 여바울 목사(복된교회), 박귀자 목사(만복수양관), 감사단장 정진성 목사(삼일회장), 사무총장 김명욱 목사(삼일회장) 등이다.

애총협 , ‘종북좌파 주도 국회, 국정농단 즉각 중단하라!’

‘거국내각’ 구성을 종북, 반국가, 반국민 국회에 맞길 수 없다

애국단체총협의회가 현 시국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애총협은 정경환산시 국회해산등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국회는 국정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성명서] 정경환산시, 국회해산위반 범국민 저항운동 전개하겠다!

2012년, 국민은 우파정권을 선택했다. 박근혜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상관없이, 국정은 ‘우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지명되어야 한다. 종북 좌파가 주도하는 국회에 누가 ‘거국내각’ 구성권한을 주었는가?! 국회는 입법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국정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1. 지금 국회는 좌파세력이 좌지우지하며 정권탈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에 국무총리 지명을 비롯한 거국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정권에 넘기는 것이다. 이들은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해체 등 한미방위체제를 무너뜨리고, 개성공단 재가



동,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지원 등 북한에 퍼주기 재개할 것이며, 6.15 및 10.4 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2.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저질적인 자해행위로 스스로 소수당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국민이 선택한 ‘우파 정권’을 지속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런데 비굴하게 종북좌파에게 항복, 거국내각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도의도, 국정주도 의지도 없는 새누리당은 생명을 다했다.

자폭하여 해산하는 게 마지막 도리를 알아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으로 국정중단 위기까지 몰고 온 과오를 통감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우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세우고, 국체를 보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회, 반국가적인 종북좌파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매 순간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휴스턴 새민음장로교회 창립 16주년 선교비전집회



휴스턴에 있는 새 믿음장로교회(담임 이인승 목사)에서는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서 달라스 성산장로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방덕수 목사를 모시고 열여섯 번째 “선교 비전 집회”를 열었다.

새민음장로교회 이인승 목사는 금번집회를 열면서 “국가들과 사회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고, 혼합주의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몰락과 퇴락을 가져오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루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부디 함께 오셔서 풀숭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개별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스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오신 방덕수 목사(달라스 성산장로교회)는 루터 1장-4장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해 형식으로 부흥 설교를 통하여 시간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심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다.

휴스턴 새민음장로교회는 6일 주일 오후 협동권사 임직식과 함께 금요일 저녁부터 총 5회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창립 16주년 기념 선교비전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안산지사장 백운성 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2016년 표어 :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49:24)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철야기도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 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30분

지향하는 4대 목표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 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 (02) 934-1232

· 요한계시록 3장 강해(23)

사데교회에 나타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

〈지난호 이어서...〉

그래서 말도 일곱 영의 능력으로 하게하고, 지혜도 일곱 영의 지혜로, 능력도 일곱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것도 일곱 영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전부 일곱 영에 의하여 살 수 있게 하고 결국은 승리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의 종이 넘어져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제멋대로 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곧 바로 주님은 사데 교회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인 그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명목상 이름은 살아 있으나 죽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과 직책과 은사가 여전히 있는데 그것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받은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가요? 사데교회 이전에 두아티라 교회에서 무엇을 받았나요? 새벽별과 칠장권세를 받았습니 다. 셋별이 빛을 발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 증거된 말씀이 이뤄지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서 칠장권세를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새벽별과 칠장권세를 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직분과 은사,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은혜 받고 세워진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살리는 일을 하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지 않으면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영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활용되어야 합니다.

2절 께어 있오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 가는 것들에게 힘을 둘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께어 있오라.”는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온전함”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만이 온전한신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로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했나요? 증거는 했는데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증거했으면 그것은 100%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 등 영적인 선물,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받았나요? 자난아가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 값을 지불하고 먹나요? 거저먹었지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쫓아 쫓아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쫓”은 힘들이지 않고 거저 받은 은혜의 땅을 의미함과 같지요.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 등 영적인 선물,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받았나요? 자난아가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 값을 지불하고 먹나요? 거저먹었지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쫓아 쫓아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쫓”은 힘들이지 않고 거저 받은 은혜의 땅을 의미함과 같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등 영적인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 다. 그러면 왜 거저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거저 받고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눠주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유익·자랑을 취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께

달으면 잘못된 것을 돌이켜 온전한 상태로 고칠 수 있느니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들었나요? 영으로 들었지요. 살리는 영으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신령한 것들은 전부 나를 살리는 영적인 것으로 받았습니 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라.”(요 6:68)하신 대로 나의 육을 위 해서가 아닌 내게 생명이 되게 하고 내게 살리는 것으로 주셨고,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우선 말씀을 증거 하지도 않았고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땅 속에 묻어 두지 말고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되 자신의 이름이나 육체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므로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치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4절 사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할 것 이니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흰 옷을 주는 경우는 순교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 6:9-11에 예수 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은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계 7:9의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교한 자들이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흰 옷을 입고 자신들을 순교하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호 이어서...〉

1.죄가주관하는이유

또 어떤 이는 죄에게 종 노릇 하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여 괴롭게 하고 고행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 방법도 옳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죄에게 청지기로 봉사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몸도 청지기인 옛사람(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받지 못하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옛사람(겔 사람)이 죽고 그 자리엔 새사람(속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죄(원수마귀)가 범 죄하라고 명해도 하나님의 청지기인 새사람(속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므로 죄(원수마귀)에게만 순종했던 죄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열려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판단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미워하는, 혐기 내는, 시기하는 옛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열려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원수마귀야! 열려하는 내 옛 사람 이미 죽었어. 난 나하고 상관있 없으니 물러갈지여다. 난 이미 열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원수마귀야! 불평하는 내 옛사람 이미 죽었어. 난 나하고 상관있 없으니 물러갈지여다. 난 이미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또한 새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고 그로 인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우리의 몸은 청지기인 새사람에게 순종하여 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새사람이 “아멘!”하고 우리의 몸은 새사람에게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는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NTV운영이사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 이 진리로 인해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죄에서벗어나려면

영생(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 노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롬 6: 6〜:7)고 하였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라고 하셨습니다.

죄가주관하는이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갈 2:20).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며 이로 인해 곤고해 하고 좌절과 갈등을 겪고 의와 영광과 희락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롬 6: 14)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주관을 받는 이유는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법에게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게 종 노릇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스스로의 내적인 분별력이 아직 없으므로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인해 엄매이고 간섭 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같이 은혜가 죄를 덮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 56)고 하심 같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죄 되지 않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롬 5: 13).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이이니라”(롬 7: 8). 그러나 법이 오므로 죄가 죄 되었기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 5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교만)으로 인해 결국은 죄에게 속아(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려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속임수)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롬 7: 11).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인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정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9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2 오늘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개혁신기 다시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코자 오신 것이다. 그러나 ‘시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기에 개혁할 때가 되어 그가 알려주신 구원의 단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단계, 단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성령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룩해 가고자 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초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영성이 회복되어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듯했으나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이 ‘구약은 폐기되었다’고 선언하고 신약의 말씀과 복음만을 강조함으로써, 구약의 기본적인 영성과 구원의 본질적인 사상들이 단절 내지는 상실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구원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믿음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영성 없는 말씀만 강조되다 보니 믿음이 생명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자 그 자리에 온갖 세속적인 방법들이 들어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3. 성막 속에 숨겨진 비밀

인간들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고 키우셔서 황당한 사막으로 끌어내신 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십 년 동안이나 함께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성막 제사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개혁’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롭다 칭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막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다섯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생애의 비밀, 둘째는 예배의 비밀, 셋째는 구원에 이르는 비밀, 넷째는 믿음의 점점의 비밀, 다섯째는 하늘의 성전 모형의 비밀이다.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는 비밀만 다루고자 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미 마귀의 속성으로 물든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금방 100% 순종할 것이라 믿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연단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시험과 과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서정의 단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 비밀들의 의미는 성막 제사의 각 단계 속에 숨겨져 있다. 성막을 다섯 단계로 보는 이유는 성소와 지성소는 안으로 들어가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였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단계마다의 의미들을 살펴보자, 첫째 회막문은 성막의 첫 단계로서, 이곳이 아니면 성막으로 들어 갈수가 없는 단 하나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곳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부르신 자들이다. 즉 소명 받은 자들을 말한다.

둘째는 성막틀 단계인데 이곳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대속물로 산제물인 짐승을 끌고 나아오는 자리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게 된다. 즉 회개를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번제단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죄를 다 태워 깨끗케 한다. 신약에 와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미가 있다. 즉 칭의를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물두멍으로서 이곳에서는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거룩성의 표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즉 중생함을 뜻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막으로,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곳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들어가 매일 떡상에 떡을 갈아 올리며, 금 촛대에 기름을 채워 넣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한다. 또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

로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도(Map)의 나침반으로 지표(Direction)를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서정(단계)인 것이다. Jx의 문, 회개, 대 속(자아죽음), 거듭남(부활), 동행(접붙임), 갖가지 은사(능력), 천국, 회막문, 성막틀, 번제단, 물두멍, 성막(성소 지성소)

[단계별 성막 영성 교육]

▶**설명:** 영성교육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 실제교육(입체적 연상 교육)이다. 특징 - ① 신앙성숙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② 성도의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맞춤교육을 할 수 있다. ◆ 성막을 통한 구원의 서정(단계) ① 회막문---② 성막틀---③ 번제단---④ 물두멍---⑤ 성막(성소, 지성소) ↓↓↓↑↑↑ ① 소 명---② 회 개---③ 칭 의---④ 중 생---⑤ 성 화(하나님과 동행)

[성막의 구조]

번제단 물두멍 N 회막문 성막틀 <성막> 성소 지성소 E WS 금촛대 분향단 떡상 [성막의 평면도]

4. 결어 오늘날이아말로 기독교가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계명인 십계명의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원칙(진리)이 아닌 인간이 만든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성막 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예수께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신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개혁’ 때까지 맡겨두셨던 성막의 구원 비밀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탈추어내시고, 그 방법대로 가르쳐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살다 영생의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7)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정국이 숨 가쁘게 요동치는 한 편에서는 5백년 철저한 신분제의 동토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일으키는 신문화 양풍이었다. 만민 평등의 가치를 내걸고 건너온 그들은 교육과 의료에서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이 땅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필자는 이것이 개혁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한다.

근대교육의 설치에 기독교 선교사들은 공헌하였다. 교회가 설립되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매일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에 자녀들에게 글과 학문과 신앙심을 심어 주었으며 나아가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포교활동과 교육활동, 의료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서 한국 근대사회에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노랑진-제물포를 시작으로 한성-의주, 한성-부산포 간에 전신선이 가설되어 통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도 이때였다. 전신 개설로 인해 신문화는 거의 동시에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의사 지식영은 왜곡에서 건너온 「종두귀감」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종두를 개발하여 백성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했다. 지식영은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글 발전에도 큰 공적을 남겼다.

고종 24년(1887), 자영은 서양 각국에 독자적으로 외교관을 파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열강의 외교관이나 선교사 부인들을 접촉하면서 얻어들은 국제정세 안에서 관망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해 5월, 고종은 1차로 민영준을 주일공사에, 김가진을 참찬관에 임명하여 부임시켰다. 6월에는 박정양을 주미공사에, 조진회를 영국덕국 법국 노국 의국(이태리) 등 5개국 전권공사에 임명했다.

고종은 청과의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청국공사 원세개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 일은 결국 이흥장이 직접 개입하

여 조선이 다음과 같은 어정쩡한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1. 조선 외교관은 외국에 가면 먼저 청국공사관에 통지하고 청국공사와 함께 그 나라 외부에 머무러야 하며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포교활동과 교육활동, 의료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서 한국 근대사회에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월 27일 위싱턴에 도착한 주미공사 박정양은 참찬관 이완용을 데리고 곧바로 미국 국무부를 예방했다. 박정양은 이후에도 청국 공사관을 방문하지 않아 청국공사로부터 힐난을 들었지만 외교고문 알렌을 보낸 게 고작이었다. 알렌은 청국공사를 만나 “우리는 본국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은 바 없어 외교 관례대로 행동했으니 양해하라”고 통보했다. 모두가 조선이 독립국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자영이 치밀하게 지시해둔 공작이었다.

본국을 거쳐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원세개는 분기탱천, 고종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소?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오. 박정양은 신임장을 제정하는 대로 곧 귀국시키도록 하겠소.” 고종은 대수롭잖은 일로 뭇 그리 요란을 떠느냐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할 뿐 청국에 대한 사대의 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고종의 약조와 달리 박정양은 2년 임기를 꼬박 채웠다. 한술 더떠 고종은 친청파인 김윤식을 유배형에 처하고 친일파 김가진을

민영준의 후임 주일 대리공사로 임명했다. 원세개의 집작대로 이 모든 일은 자영이 막후에서 조종한 일이었으며, 자영은 친청 친노 친일 인사를 두루 기용함으로써 외세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종 25년(1888)부터 조선의 열강 외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원세개는 주어진 외교적 권한을 뛰어넘어 고종 폐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조선 정가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녔다.

이흥장 또한 제 코가 석자라 임기를 훨씬 넘긴 원세개를 소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를 읊어낸 ‘울무’는 서태후의 사치였다. 서태후는 장차 섭정에서 물러난 뒤에 머물 별궁 이화원을 지으면서 예산 3천만냥을 쏟아붓고 있었다. 청국 해군의 1년 예산 4백만 냥은 흔적도 없이 이화원으로 흡수되었다. 인공 산과 호수를 결집인 이화원은 진시황의 아방궁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별궁으로 재정의 블랙홀이었다.

이때 이흥장이 관장하는 청국 해군은 7전통군 철갑함 2척, 2전통군 순양함 5척을 거느리고 있어 왜국 해군의 전력을 능가했다. 이후 서태후의 전횡으로 전함을 추가 도입하지 못함으로써 청국은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패하여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생각은 얕고 권한만 방만하게 가진 한 여인의 호화 사치가 결국 조·청·왜 세 나라의 명운을 요동치게 했던 것이다.

자영은 함경도 경흥을 개방하여 러시아와 육로통상을 개시하고 미국 군인을 군사교관으로 임용하는 등 균형외교를 도모했지만, 그녀 역시 바닥난 재정으로 인해 큰 그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영 또한 호방한 배포에서는 서태후에 못랐으나 국력이 느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할 뿐 청국에 대한 사대의 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고종의 약조와 달리 박정양은 2년 임기를 꼬박 채웠다. 한술 더떠 고종은 친청파인 김윤식을 유배형에 처하고 친일파 김가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용 목사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국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도회 오후 9시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복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원국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사)한기보험 각 교단 신학 학장 간담회 및 신학위원회 모임 가져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 - 본 협의회의 사명이 중차대함을 밝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험, 지왕철 목사) 산하 기관인 신학위원회(위원장 한홍교 목사, 예정호헌총회장)는 지난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협의회 사무실에서 격월로 진행되는 신학 세미나를 보다 효과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한기보험 산하 각 교단 신학교 학장을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진행은 신학위원회 총무 광영민 목사(공동회장, 예정호헌총회장)가 1부 예배를, 위원장 한홍교 목사(상임회장, 예정호헌총회장)가 2부 연석회의를 각각 맡아 진행하다.

예배 순서자로는 대표기도에 김길중 목사(한국메시아니교회 토라공동체 연합 신학교 학장 및 총회장)가, 설교 및 인사에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가, 축도에 임준재 목사(예정개혁운동 총회장)가 맡았다. 한 목사는 “지식이란?”(호4:6)이란 설교에서 현시대는 현재 각 신학교마다 재정의 열악함과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여타 신학교를 막론하고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육은 각 교단과 한국교회의 장래가 달려있는 만큼 중

요함을 역설하였다.

서구유럽의 교회의 전반적인 붕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음에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민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질적으로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스란히 개교회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사)한기보험 신학위원회에서 신학세미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 목사는 본 세미나는 “성경원형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보수”란 극단적이 아닌 중용적이어야 한다고 보며, 신학위원장으로서 지난 4회에 걸쳐 본협의회 산하 각 교단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120만 성도에서 600만으로 교인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때에 본협의회 신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학세미나의 사명이 중차대함을 느끼며, 한국교회에 경종을 주기를 원한다고 피력하였다.

학장님들이 본협의회 40여개 교단과 단체들에 소속되었으므로 공



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학 세미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본 협의회는 교단과 교리가 다른 협의체이므로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되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부 연석회의는 한홍교 목사의 개회선언 및 인사 및 학장들 소개, 신학위원회 보고, 안건 및 토의 및 폐회 순으로 진행 되었다. 그동안 신학위원회는 4회에 걸쳐 격월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마지막 세미나인 5회 세미나를 앞두고, 2017년도 세미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후에 제5회 세미나를 위한 1차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리허설은 강사들이 본세미나에서 강의할 내용을 가지고 실제 세미나를 하듯이 신학위원들 앞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하며, 본 세미나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본회 임원들 및 신학위원들 앞에서 엄격하게 진행된다. 제5회 신학세미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에 소재한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초교파적으로 개최됨을 광고하고 많은 참석과 호반을 부탁하며 마쳤다.

광영민 기자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11주년 감사예배



지난 28일(금) 오전 11시 의정부 소재 예복교회(소진우 목사/본지 사장)에서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정대성 목사(부이사장/부총재)의 대표기도와 오직예수 찬양 선교단(선정운 목사 부부), 하늘빛 위심선교단(김사랑 단장), 꾸미오리 기독무용단(김창숙 목사/공동회장), 류재만 찬양 선교사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지 사장이며, 언부협 연수원장이신 소진우 목사는 창28:18-19의 본문을 가지고 “루스를 뵈엘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루스라는 땅의 이름에는 사원이 많은, 한 땅은, 곡질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을 바라보는 아랍의 눈은 다르게 보았다.

아랍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뵈엘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편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되게하시 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지저스 타임즈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긍정적인 신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미국 LA AKTV(ch18.10) 사장 김창호 목사 외 크리스천헤럴드 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전해왔다. 지저스 타임즈의 창립 제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은 형제의 연합과 사랑과 협력을 강조하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라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저스타임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사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의 고리로 연결을 해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무사히 지내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문사는 이민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과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찬양과 말씀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하시고 사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들이

함하여 회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는 1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3천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안보를 부탁드리면서 발전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외 전국 지사들로부터 또는 필리핀, 호주 치앙마이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이며 지사장 등이 축전을 전해왔다.

이어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는 노병주 목사, 이윤재(혜진) 목사를 본사(상임이사 및 언부협 부총재)에 추대하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모성춘 목사를 인천지사 취재부 기자로, 백운성 목사(안산지사장)를 본사 총무국장과 언론부 홍사협의회 실무총무로 각각 사령하고 임명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신문사를 위하여, 문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50여 지사를 위하여, 미국 LA 크리스천헤럴드 및 AKTV18.10 (www.aktv1810.com) 제휴사를 위하여,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예복교회와 회원들 교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흥희 목사(자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 예복교회 권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찬을 나누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공동회장 김선우 목사의 지도로 이사회를 열고, 새롭게 사령을 받은 동역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기도문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이단 배제 전제하에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 4인 파송기로 결의

현 시국에 관한 시국기도문 발표하고 한 주간 합심기도하기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이단 배제를 전제로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에 위원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11월 8일(화) 오전 한국교 연합회의실에서 제5-8차 임원회를 열고 교단장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 9인중 한국교 연합추진위원회 4인을 이단 배제를 전제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들은 가장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공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을 배제한다는 것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단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연합추진위원 4인을 파송해 9인 위원회에서 제반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한편 연합추진위원 4인에 대한



추천은 지난 제5-6차 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대표회장조경 대표회장들에게 위임했다.

임원회는 이날 현 시국에 관하여 시국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38개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현 시

국과 나라를 위해 한 주간을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합심해 기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대통령이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국정 농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교

회 지도자들이 권력에 야합하여 불의를 모도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재를 뒤집어쓰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전 회원교단이 동참하기로 했으며, 국가의 상황이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달아 민생과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을 기도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이밖에도 제5회기 결산과 제6회기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했으며, 대표회장이 발의한 한국사회발전연구소 설치의 건은 대표회장조일래 목사에게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제6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양병희 목사를 대신해 제3회기 대표회장인 한영훈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2017년 신년특별수련회 공고

총회장



강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
(창영교회)

서기



오진철 목사
(유성교회)

부서기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
(축복교회)

부회록서기



김성덕 목사
(생수교회)

회계



이영이 목사
(유전교회)

부회계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님과 임원 모두는 총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땀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오진철 목사 H.P 010-8914-0969

스리랑카에 2차 강렬한 생명의 빛을 비추인 장한국 목사

180여명의 목회자, 직분자, 현지인들 선교에 큰 변화 일으켜

9일간의 스리랑카 제 2차 선교를 통해 강렬하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큰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16일(수요일) 주사랑교회 선교팀과 함께 귀국한 담임 장한국 목사(진리교회 총회장).

스리랑카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선교팀은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 이틀째 날 강의 중 쉬는 시간 그레이스교회 담임목사 "달립"이 강사인 장한국 목사에게 달려와 목사님 제가 "젠나오 아노펜"이 되게 해 주시어(being born from above)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3일간의 세미나를 마칠 때 타밀족의 참여 목회자들의 대표인 총회장 프린스 목사는 장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 두 가지 생명(조애:하나님 생명, 비오스:피조물 생명)에 대해 밝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보리떡 다섯 덩어리의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첫째 부활의 진리를 가리키는 생명의



뱀임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먹게 되었음을 알았고, 또한 요한복음의 십자가 중앙에 주님이, 좌우에 달려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공관 복음과 달리 생명세계를 밝히 깨닫게 하여 구속사적 안목이 크게 달라졌으면서 강사 장한국 목사가 영어로 유창하게 격양된 어조로 토하듯이 말씀을 전했다. 감동

장 목사와 선교팀은 스리랑카 땅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쳐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콜롬보시에서 1주일여정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의 세미나를 영어로 진행했다.

장 목사는 그레이스처치와 콜롬보유니온처치 등에서 이틀간, 180여명의 목회자들, 직분자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파송된 한인선교사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진리의 빛을 받았으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늘소망의 새로운 신앙으로 새 출발하거나, 하늘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깨달은 그대로 증거 하는데, 목회를 더욱 생동감 있고 확신감에 넘치는 가운데 할 수 있으리라 결심하게 해주었고, 또 믿게 됐고, 체험했음을 고백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했다.

선교기간동안 감사한 것은 9일간(11월8일-15일)의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강렬한 감화 감동의 역사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은 내년 2017년에도 제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 해달라며 장한국 목사를 붙잡고 강청했다.

이번 스리랑카 현지에 감사로 나선 장한국 목사(CPTV 부이사장)의 선교팀 5명 전원(박인숙 사모, 박현주, 신현미, 정용순, 이진숙 집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으며 계속 스리랑카 현지에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었으며, 다시 한 번 2014년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장한국 목사 외 선교팀의 선교보고

예장합보 한중노회 여주전원마을에서 기도회 가져

특전 은퇴목사의 노후대책으로 분양시작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중노회(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지난 11월 14일(월)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에서 30여명의 교역자 부부가 모인가운데 여주 전원마을모델하우스 오픈 감사예배가 교역자회 서기 김관호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임원택 목사가 기도, 교역자회장 조영만 목사는 고전 5:7절을 중심으로 '3단계의 새 덩어리'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교역자회 서기 김관호 목사의 광고 후 한기창 목사의 인도로 2부 기도회가 시작되어 1.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해속 목사가, 2. 총회와 한중노회를 위하여 배영자 목사, 동천교회와 여주전원마을 모델하우스와 사업을 위하여 한복희 목사 등이 기도를 한 후 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전원마을 모델하우스 오픈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여주전원마을 모델하우스 오픈을 계기로 1차로 전원주택 9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원주택은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합쳐 115평이며 주택 1층 20평, 가격 1억 6,500만원,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포함 115평, 주택 2층 28평이며 1억 9,500만원이다. 현재 대지 중심이 평당 60만원, 그



외대지는 평당 55만원이다.

또한 시설로 거실 고급소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2대, 뒷밭 30평이며, 넓은 집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여주상수도 개설, 농협, 마을금고 시중은행 대출60-70% 가능(이자 3%대), 교육환경은 초등학교, 여중, 고등학교, 남중,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있으며, 전원주택에서 면사무소, 파출소, 복지관, 대형운동장, 한강 자전거도로 3km, 이포보 4km, 세종대왕릉 12km, 명성왕후 생가 15km, 여주도자기 공장 5km 내에 있다.

전원주택의 특징은 지붕두께 30센티, 벽두께 27센티이며, 단열이 잘되어 있다. 주택 창문유리와 거실유리의 두께 24mm, 에취빔을 사용하여 집이 튼튼하며 단열이

잘된 전원주택이다. 아울러 여주전원주택은 교통 요충지로 적합한 살기 좋은 곳이다. 게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께는 희소식이다. 은퇴 목사님들의 노후대책으로 마련되었으리 우선 30여 채가 들어서며, 단지 내 수영장과 노후수련회관이 건립된다.

여주전원주택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여주 전철역이 지난달 개통되었으리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가 개통되었고, 대신IC에서 전원주택까지 2km이며 2-3분소요 되며,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소요, 천호동과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여주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소요,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소요,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소요,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소요,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소요,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소요,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소요가 되는 교통요지이며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전원마을이다.

일 저녁 9시-11시), 3. 국제 문화예술 선교신학원은 목회자 및 사망자 반 월요일 오전 10:00-16:00), 4. GDFC 워십스쿨 & 데이빗스쿨 David School 교육은 가족치료, 부부 크리닉, 청소년상담, 특기적성개발, 컴퓨터 중독 장애아 치료 상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주일 오후 4시-5시까지 교육하고 있다.

국제 문화예술 선교신학원, K.D.C.U (Korea Destiny Christian University)학장, 하나님에 디자인 하신교회 담임 김창룡 목사 선교학, (목회상담)박사(Dr.), 치유와 회복 선교회 힐링센터 원장 박영미 목사 교육학, (상담심리) 박사(Ed.D), 자세한 신앙상담 및 입학 관련 문의 : 010-5287-0691, 010-7172-0675

한편 한중노회는 지난달 제173회 정기노회를 갖고 신임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를 선임하고 부노회장 한기창 목사(주사랑교회), 서기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서기 박기철 목사(홍제중앙교회), 회록서기 송창훈 목사(새샘물교회), 부회록서기 최철호 목사(생명나무교회), 회계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회계 한복희 목사(양문교회) 등이 선임되었다.

문양봉의 JTNTV 및 지저스타임즈 02)854-1355, 032)672-3031, 010)5468-6574

Destiny Christian University of Korea

국제문화예술선교신학원 개강예배 드려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 김창룡 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는 주제로 지난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관항길 242번길 75 1층 예배당에서 국제문화예술선교신학원 개강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학장 김창룡 목사의 인도로 개강감사예배가 시작되고 선교비전노회 부노회장 서인자 목사(은혜동산교회)가 기도를, 교무처장 박영미 목사의 봉헌기도와 신학원장 김창룡 목사의 성경봉독(엡4:1~3, 11~12), 피아노 김영미, 바이올린 험시바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연주했다. 이어 교수 강상기 목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아울러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가 격려사를, 박동호 목사(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의 권면과 인도자의 광고가 있은 후 신학원장 김창룡 목사는 본원 교수에 강상기 목사(목회신학과), 권태경 목사(선교복지학과), 박영미 목사(상담학과), 허 석 목사(자연치유학과)등을 위촉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양평 정일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국제문화예술선교신학원(신학원장 김창룡 목사)은 이 땅의 상처 입은 영혼들의 영과 육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중보 기도하면서 상담, 치유하고 회복시켜 건강한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나라, 민족을 살리는 장성한 분량의 크리스찬으로 양육하는데 있으며, 땅 끝까지 달려가 열방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강력한 영적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보자들을 양육하는 사역과 열정에 불타고 있다.

본원의 특징은 사도적인 영성을



겸비한 사망자들을 키워내는 실천 신학적인 과정으로 한국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동시 졸업증과 학위가 주어지며, 따라서 사망자들을 위해 학부, 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사명과 능력은 있으나 학력 때문에 위축되었던 목회자들에게 날

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본원의 취지를 밝혔다.

본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1. 치유와 회복 7단계 교육을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중식 제공),
2. 중보기도 사망자학교는 금요



담임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 담임목사: 조강수
- 부 목사: 이주홍
- 협력선교사: 김중록, 이두원,

-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임청수, 이철호,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원명숙
-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 전 도 사: 양승숙

- 성가 대장: 박남주
- 지 휘: 박성진, 왕호정
-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밤 예배: 저녁 8:00

- 금요철야예배: 밤 11:00, 새벽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 6:00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이유
성경: 시편 36편 12절
찬양: 찬송가 370장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표현의 재확신으로 악인의 멸망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끝내는 다시 일어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반면에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망해도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쓰러져도 다시 이 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악인의 변역을 보고
성경: 시편 37편 1절
찬양: 찬송가 446장

본절은 악인의 변역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의 성공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머지않아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갖는 일은 여호와와 공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 것과 상응한 일이 됩니다. 오늘 내게 상처를 주는 이 조차도 품고 기도 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배장 있는 인물이 되십시오.

제목: 짧은 삶에서
성경: 시편 37편 2절
찬양: 찬송가 538장

풀과 푸른 채소는 일시적인 것 특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지 않으시는 무상한것을 묘사하는 직유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며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시 화살과 같이 속히 지나가고 맙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다시 주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주님 나라의 상급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믿음의 사람은
성경: 시편 37편 3절
찬양: 찬송가 569장

본 구절은 여호와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행악자와는 달리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 복 받았다면 그 사람이 왜 복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경: 시편 37편 4절
찬양: 찬송가 289장

기뻐하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 표현은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는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 때 세상을 보며 줄 수 없는 만족감이 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길
성경: 시편 37편 5절
찬양: 찬송가 302장

여기서 길이란 계획들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르는 문제들이나 결과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신앙인에게는 오직 이것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운세, 별자리, 띠, 등을 재미로라도 보지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길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목: 내 앞에 선택에 따라서
성경: 시편 37편 6절
찬양: 찬송가 260장

내 의의 문자적인 뜻은 의, 재판, 정당한 등입니다. 인간의 삶을 살피볼 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진정한 삶의 가치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알려진 그분의 약속에 의거한 축복 혹은 저주를 판결 받듯이 경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 담길 그릇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지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제목: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성경: 시편 37편 7절

찬양: 찬송가 96장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것은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당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 되어 주시는 것을 100%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제목: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라면
성경: 시편 37편 8절
찬양: 찬송가 421장

본절은 악인이 수월하게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중언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순간만 악인의 변역과 성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악인이 박수치며 기분 좋아 할 일이라면 영적 오기를 가지고라도 펼쳐버리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분 좋아 하실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주님이 주신 땅으로
성경: 시편 37편 9절
찬양: 찬송가 273장

행악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가나안 민족들이 맞았던 것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처럼 행악자는 파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건한자는 참고 기다립니다. 내 인내로 내 힘으로 참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참아지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그의 언약한 위에서
성경: 시편 37편 10절
찬양: 찬송가 180장

가상의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될 그 일의 분명한 성취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취의 내용은 운운한 자와는 달리 악인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사랑한 백성과 언약한 것을 깨지 않으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위에서 믿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합니다.

제목: 하나님께 집중
성경: 시편 37편 11절
찬양: 찬송가 365장

운운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겸손한 자이나 문맥으로 보아 고동받고, 눌리고, 궁핍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로서, 자랑하고 모반한 악인과는 달리 드러나는 품성에 있어서 대비가 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 된 사람입니다.

제목: 분노의 원인
성경: 시편 37편 12절
찬양: 찬송가 390장

때로 악인은 자신들의 순조로운 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의로움을 질투하여 악행의 음모를 계획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변역이 아직 미래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질 때 그런 일을 행합니다. 분노하는 악인은 흔히 그 이를 잡아 보이는 들짐승과 흡사하게 극대의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복음이 아닌 일로 화를 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의 웃음이

요약설교 보혈의 능력

히 9:22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피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피는 생명과 관계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인을 금하고 있다(신 5:17). 피는 먹지 말라고 하였다(레 3:17).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의 피로 속죄의 희생을 드렸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석에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고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도 번제단에서 희생이 된 무수한 피는 십자가상에서 희생이 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요, 영원한 언약이 된다(히 9:20, 고전 11:25).

1. 사죄의 능력(구속)

벧전 1:18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히 9:12) (엡 1:7) 그의 피로.

2. 칭의의 능력

〈롬 5:9〉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딤후 3: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롬 3:24〉.

3. 성결의 능력

〈요일 1:7〉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 10:29, 13:12). 〈히 9:14〉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 9:22〉.

4.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 11:19〉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엡 2:13〉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 하셨다.

5. 화목케 하는 능력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엡 2:14~17).

6. 승리의 능력

〈계 12:11〉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계 1:5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7. 영생 기업의 능력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와 일체)(56)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선교를 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전원주택모텔하우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 전철역 개통)

오픈

은퇴 목사님께 희소식!

은퇴하신 목사님의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살기 좋은 전원주택 30여채와 단지 내 수영장 준비 중...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수영관을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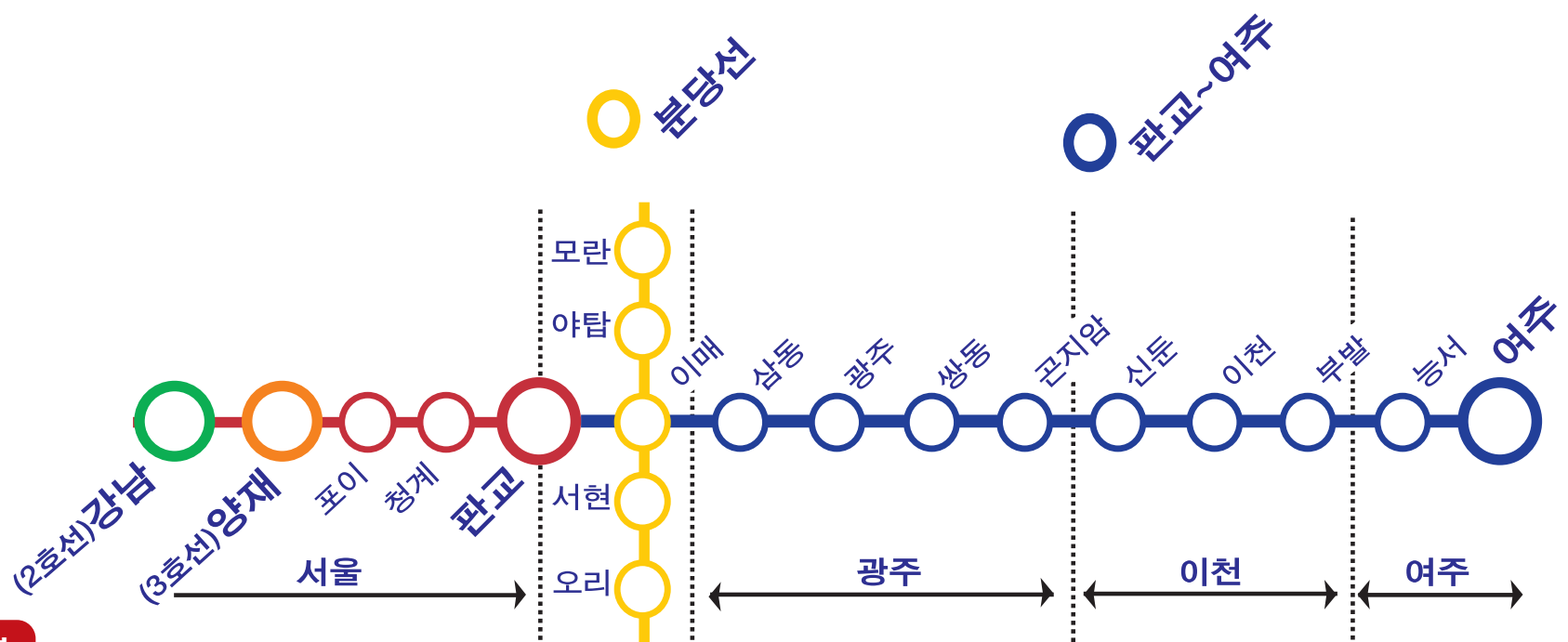
- ♥ (1억6,500만원 / 1억9,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주택 20평(1층)=1억6,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28평(2층)=1억9,500만원
- ◆ 고급 쇼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 농협, 마일금고, 시중은행 대출 60~70%까지 가능(이자 3%대).

교육환경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 010-5468-6574, **032-672-3031**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